

취업모의 성격특성과 자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Child Rear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김선희(Sun Hee Kim)¹ · 박정윤(Jeong Yun Park)²

¹Department of Family Welfare & Housing Environment, Chung-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mothers' personality traits in predicting their parenting stress. The study subjects were married working woman who live at Gyeonggi-do and has their first child studying i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8.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hown through examination of the general tendency of observation subjects' relative factor, that many have above average parenting stress. The compositing factor for parenting stress were mainly the burden and distress of the parent role. Second, the differences in parenting stress were affected by relative variable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features of the study object. If the younger the parent, the higher the education, the lower the age of the first child, and if there were a child assistant after school, the parenting stress became larger. Third,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mployed mothers' neuroticism significantly predicted greater parenting stress. When mothers had more conscientiousness and openness, they reported less parenting stress which implied that interpretation and perception of child rearing experiences can vary depending on personality and predict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주제어(Keywords) : 취업모(employed mother), 성격(personality),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NEO 인성검사 (The NEO Personality Assessment system)

I. 서론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성장하게 된다. 그러한 가족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경험하고 수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원이 감소하면서 핵가족이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가족의 기능과 가치관, 관계들이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내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

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다. 여성의 학력수준 상승과 사회진출 기회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였고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도 증가하였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기혼여성 참가율이 49.2%를 차지하고 있어 맞벌이 가족의 보편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반면 연령별 구조에서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여전히 M자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34]. 기혼취업여성의 증가와 연령별 취업현황의 편중을 고려할 때 이는 일-가

Corresponding Author : Jeong Yun Park,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72-1, Nae-ri, Daedeok-Myeon, Anseong-Si, Gyeonggi-Do, 456-756, Korea Tel: +82-31-670-4789, Fax: +82-31-675-4746, E-mail: pjy4838@cau.ac.kr

본 논문은 2011년 김선희의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Copyright 2012,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정 양립 특히 자녀양육의 문제에서 비롯되어졌음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됨으로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일과 가사, 자녀양육과 같이 많은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취업여성은 비취업 여성과는 또 다른 요인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즉 기혼취업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의해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22], 이는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혼취업여성과 관련한 변인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혼취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개인의 문제에서 나아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기혼취업여성의 스트레스 관련변인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bidin은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자녀 양육스트레스로 개념화 하였다[1]. 그에 따르면 자녀의 행동 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인 자녀의 특성, 부모로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 느끼는 지각인 부모의 특성, 일상적인 생활 사건에서 오는 생활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였다.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은 활동성, 부모강화, 감정, 수용성, 적응성, 요구성으로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어머니가 받아들이고 대처하는데 이러한 자녀의 특성이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부모의 특성은 부모의 성격, 정신병력,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의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정도가 다르다. 침체성, 유능성, 애착과 같은 부모의 인성 및 병리학적 요인과 배우자 관계, 고립, 건강, 억압과 같은 것이 상황적인 변인이다[29, 30]. 생활스트레스는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경제적 여건, 주거환경, 취업, 사회적 지지 기반 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 부모의 특성, 부모의 환경에서 오는 생활스트레스로 인해 겪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써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준다.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는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1]가 보고되고 있다. 즉,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성이 낮고 통제적이였다. 또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온정성과 수용성이 부족하고, 불일치한 훈육방법을 사용하며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대를 하게 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새

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감과 가사노동의 증가는 어머니에게 개인생활을 가질만한 여유를 주지 않고 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느끼게 하기도 한다[25].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고, 자녀를 방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기혼취업여성에게 자녀 양육은 취업 지속여부를 판가름 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면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16].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 특히 국내연구에서 조명 받지 못한 어머니 성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성격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뉘었다. 첫째, 성격특성은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우울한 성향이 강한 어머니는 자녀양육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더 불안해하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낀다[23]. 둘째, 스트레스는 성격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도 있다. 즉, Lazarus 외는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 그 자체보다는 어머니가 스트레스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하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quoted in 23]. Belsky 외는 부모의 성격특성, 특히 Big Five라고 불리는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과 개방성[6]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예측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신경증과 관련된다고 알려진 우울적인 성향은 아동 발달과 일관되게 관련되어 왔는데[8] 이는 부정적인 정서가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된 결과라고 보았다. Gondoli와 Silverber의 연구에서 문제해결과정을 자녀와 함께 풀어가는 부모들 중에서 보다 우울하고 불안하며 자존감이 낮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동을 덜 지지하고, 자녀의 의견을 덜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Losoya 외는 보다 외향적인 부모일수록 초등학교 자녀와 상호작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자녀의 독립성을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또한 Kochanska 외는 어머니의 친화성과 반응적인 양육행동 간 유의한 관계를 보고한바 있다[24]. 이와 같은 성격이 양육특성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Belsky 외는 어머니의 기분과 정서를 들었는데, 부모가 가진 성격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고, 그 정서가 자녀양육행동을 예측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한 바 있다[6].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어머니의 성격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검증이 중요함을 뒷받침한다.

즉, 성격에 따라 양육경험을 해석하는 방식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Crinc 외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경험인 일상적 스트레스가 중요하며, 이 스트레

스도 발생빈도보다는 사건을 지각한 강도가 부모의 심리적 상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7]. 결국 부모의 심리적 건강에 있어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는 스트레스 사건을 부모가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사건적인 경험보다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인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부모가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지각하는지의 강도가 부모에게 더 중요하다. 또한 부모 자신의 건강이나 성격, 정신병력,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의 특성은 양육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12]. 따라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의 지각정도이며 이는 부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 지각도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이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Gomez 외에 의하면, 외향성과 신경증은 정서적인 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 다르게 반응하게 하는 성격요인이다[9]. 즉 외향성은 정보를 기분 좋게 처리 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고, 신경증은 보다 불쾌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도 같은 기질의 아동일지라도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질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이며 즉, 어머니가 외향적인 성격특성을 가진 경우에는 자녀의 까다로움이나 문제 행동을 아이다운 특성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많은 유아에게도 지지적인 훈육방식을 취한다고 하였다[11]. Ahn 외 또한 어머니가 쉽게 흥분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신경증이 높으면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2]. 따라서 쉽게 흥분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의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감정과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Vondra 외에 따르면 우울하고 짜증을 잘 내는 신경증적 성격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을 왜곡해서 판단하거나 자녀의 잘못이나 실수를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며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35]고 하였다. 반면,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출하고, 자신의 양육스트레스를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일부 해소시키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도 성격에 따라 다르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은 밝혀지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관련변인은 인구학적 변인[10, 17, 18, 31, 32] 배우자와의 관계 등의 가족 변인, 사회적 지지 변인 등이 제

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머니 개인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스트레스 인지가 달라질 수 있고, 대처양식도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주로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고찰하는 수준정도가 일반적이고 양육자의 성격 특성등과 같은 양육자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주 양육자인 기혼취업여성의 성격특성이 양육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모 성격이 양육 스트레스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맞벌이 가족의 기혼취업여성의 개인이 가진 기질이 양육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서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혼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그에 관련된 변인을 밝히고자 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성격요인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자녀를 취업모의 성격과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 경향성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자녀를 취업모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초등학교 자녀를 취업모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첫 자녀의 연령이 학령기 자녀인 기혼취업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1년 2월 10부터 3월 4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1곳과 그 외 각 가정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는데, 초등학교에 배포한 질문지는 교장선생님과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을 통해 각 가정으로 설문지를 보내어 어머니 각자가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설문지는 다시 아동을 통해 초등학교로 회수한 후 연구자가 수거하였으며 각 가정에 배부한 질문지는 연구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 수거하였다. 총 350부를 배부하여 30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86.9%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한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 응답이 불성실 하거나, 불분명한 자료 13부를 제외하고 총 291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Kim 외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21]. 본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12문항),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8문항)이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Cronbach α 는 .880,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Cronbach α 는 .854,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Cronbach α 는 .880이었으며, 전체 양육 스트레스의 Cronbach α 는 .941로 나타났다.

2) 어머니 성격요인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NEO (The NEO Personality Assessment system) 인성검사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28]. NEO 인성검사의 단축형은 총 240개 문항 중 5개요인 각각을 잘 나타내는 문항을 추

출하여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친화성(12문항), 성실성(12문항), 외향성(12문항), 신경증(12문항), 개방성(12문항)의 5개의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성격특성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변인별로 친화성 Cronbach α 는 .632, 성실성 Cronbach α 는 .772, 외향성 Cronbach α 는 .707, 신경증 Cronbach α 는 .770, 개방성 Cronbach α 는 .681이었으며 어머니 성격특성 전체의 Cronbach α 는 .670이었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세 이상이 4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37세~39세가 34.0%, 34세~36세가 15.1%, 31세~33세가 2.4%, 30세 이하가 2.4%순으로 평균 연령은 39.06세였다. 교육수준의 분포는 고졸이 49.8%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은 47.8%이고 대학원졸 이상의 응답자가 2.1%, 중졸 이하가 0.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는 공무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Variables	Groups	n (%)	M (SD)
Age (year)	30 or less	7 (2.4)	39.06 (3.69)
	31 - 33	7 (2.4)	
	34 - 36	44 (15.1)	
	37 - 39	99 (34.0)	
	40 or more	134 (46.0)	
Education	Middle school	1 (.3)	
	High school	145 (49.8)	
	College	139 (47.8)	
	Graduate school	6 (2.1)	
Occupation	Professional	71 (24.4)	
	Clerical	58 (19.9)	
	Self-employed	54 (18.6)	
	Service or production etc.	57 (19.6)	
		51 (17.5)	
Monthly family income (won)	1,000,000 or less	6 (2.1)	403.69 (164.91)
	1,010,000 - 1,990,000	12 (4.1)	
	2,000,000 - 2,990,000	29 (10.0)	
	3,000,000 - 3,990,000	82 (28.2)	
	4,000,000 or more	162 (55.7)	
Number of children	1	64 (22.0)	
	2	197 (67.7)	
	3 or more	30 (10.3)	
First child	Elementary school	215 (73.9)	
	Middle/high school	76 (26.1)	
After school child care provider	Yes	132 (45.4)	
	No	159 (54.6)	
Provider type	Family/relative	81 (27.8)	
	Babysitter/academic institute, etc	51 (17.5)	

원 및 전문직(의사, 법조인(변호사, 판사 등), 교사(수), 연구원, 언론인, 디자이너, 간호사 등 을 포함)이 24.4%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이 19.9%, 서비스 및 생산직이 19.6%, 자영업이 18.6%, 기타가 17.5%로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 월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300~399만원이 28.2%, 200만원~299만원이 10.0%, 101만원~199만원이 4.1%, 100만원 이하가 2.1%이었고 평균 월수입은 403.69만원 이었다. 자녀수는 2명이 67.7%로 가장 높았으며, 1명이 22.0%, 3명이상이 10.3%로 응답하였다. 첫째자녀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생이 73.9%와 중·고등학생이 26.1%였고.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에서 45.4%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54.6%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방과 후 조력자가 있는 응답자 중에 조력자로는 가족 친지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도우미, 학원, 기타 등의 가족 외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경우가 17.5%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가 문항 간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 성격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등을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하위요인의 집단 간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혼취업여성의 관련변인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별로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첫째, 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2.20점으로 1~4점의 범위에서 볼 때 약간 높게 나타나서 응답자들은 양육스트레스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하위요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평균이 2.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하위

변인의 스트레스 정도는 2.1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으로 인한 바쁜 생활로 인해 자신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인에게 자녀를 맡기는 자체가 스트레스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도 2.11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일상적 스트레스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을 볼 때 일·가정 양립으로 인한 바쁜 생활 속에서 기혼취업여성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자신의 시간과 생활을 많은 부분 포기하며 지내고 있지만 힘든 자녀와 함께 하는 생활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혼취업여성의 성격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1점~4점 범위에서 친화성은 2.84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실성의 평균은 2.80점, 외향성은 2.70점, 개방성은 2.57점이었고, 신경증은 2.30점으로 순의 평균을 보이고 있고 모두 중간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analytical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	SD
Parenting stress	Child rearing general stress	1.00	3.42	2.11	.51
	Burden and distress of parenting	1.00	4.00	2.32	.55
	Guilt over using nonmaternal care	1.00	4.00	2.15	.58
	Total	1.00	3.59	2.20	.48
Personality traits	Agreeableness	1.33	3.75	2.84	.31
	Conscientiousness	1.92	4.00	2.80	.37
	Extraversion	1.83	3.92	2.70	.34
	Neuroticism	1.25	3.67	2.30	.38
	Openness	1.64	3.55	2.57	.3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차이는 어떠한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양육스트레스를 하위요인별로 알아본 결과는 다음 Table 3와 같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연령($F = 7.463, p < .01$), 교육수준($F = -2.495, p < .05$), 첫째자녀 연령($F = 5.121, p < .001$),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F = 4.806, p < .001$)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 가족월수입, 자녀수, 조력자 대상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서 40세 이하인 집단과 41세 이상인 집단보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고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ble 3.
Subscales of parenting stres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others

variables	groups	n	General stress		Burden & distress		Guilt	
			M(SD)	F(t)	M(SD)	F(t)	M(SD)	F(t)
Age (year)	37 or less	93	2.23 (.50) ^a		2.38 (.56)		2.27 (.58) ^a	
	38 - 40	110	2.13 (.48) ^a	7.46**	2.37 (.46)	3.011	2.17 (.54) ^{ab}	4.92**
	41 or more	88	1.95 (.53) ^b		2.21 (.61)		2.00 (.58) ^b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146	2.03 (.51)		2.29 (.55)		2.08 (.61)	
	College or more	145	2.18 (.50)	-2.50*	2.36 (.54)	-.98	2.22 (.55)	-1.99*
Occupation	Professional	71	2.20 (.52)		2.47 (.55)		2.20 (.54)	
	Clerical	58	2.11 (.44)		2.32 (.50)		2.30 (.52)	
	Self-employed	54	2.12 (.51)	1.05	2.23 (.52)	2.046	2.09 (.61)	1.79
	Service or production etc.	57	2.06 (.56)		2.33 (.56)		2.04 (.62)	
		51	2.02 (.52)		2.22 (.58)		2.11 (.61)	
Monthly family income (won)	3,300,000 or less	94	2.09 (.54)		2.36 (.58)		2.16 (.62)	
	3,310,000 - 4,400,000	97	2.14 (.50)	.28	2.38 (.57)	1.901	2.19 (.61)	.39
	4,410,000 or more	100	2.10 (.49)		2.24 (.49)		2.12 (.52)	
Number of children	1	64	2.11 (.53)		2.31 (.63)		2.24 (.66)	
	2	197	2.11 (.51)	.17	2.33 (.53)	.039	2.14 (.56)	1.12
	3 or more	30	2.06 (.47)		2.31 (.46)		2.07 (.51)	
First child	Elementary school	215	2.20 (.49)		2.34 (.54)		2.20 (.57)	
	Middle/high school	76	1.86 (.48)	5.12***	2.27 (.56)	1.043	2.01 (.61)	5.77***
After school child care provider	Yes	132	2.26 (.48)		2.45 (.58)		2.30 (.56)	
	No	159	1.98 (.50)	4.80***	2.22 (.49)	3.637***	2.03 (.57)	4.00***
Provider type	Family/relative	81	2.27 (.50)		2.42 (.54)		2.31 (.51)	
	Babysitter/academic, Institute, etc	51	2.24 (.45)	.34	2.50 (.64)	-.813	2.29 (.65)	.21

* $p < .05$, ** $p < .01$, *** $p < .001$

교육수준도 대졸이상이 고졸이하 보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기혼취업여성이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하였다는 선행연구[20, 22]와 같은 결과였다.

또한, 첫째자녀 연령에서도 첫 자녀가 초등학교생인 경우가 중고등학생 보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 취업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은 높게 나타났다 [3, 32]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기혼취업여성이 지각한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는 방과 후 자녀 조력자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조력자가 없다는 집단보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는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F = 3.637, p < .001$)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족 월수입, 자녀수, 첫째자녀연령, 조력자 대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양육스트레스 중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연령($F = 4.922, p < .01$), 교육수준($F = 3.945, p < .05$), 첫째자녀 연령($F = 5.774, p < .001$),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F = 4.000, p < .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직업, 가족 월수입, 자녀수, 조력자 대상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에서는 연령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나이가 적은 집단이 많은 집단보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자녀 연령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에서도 조력자가 있는 집단이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어머니 성격과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취업기혼여성의 어머니 성격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기혼취업여성의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Table 4와 같다. 양육스트레스와 취업모의 성격간의 상관성을 보면 전

Table 4.
Zero-order cor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parenting stress

	1	2	3	4	5	6	7	8
Personality								
1. Agreeableness	1							
2. Conscientiousness	.41**	1						
3. Extraversion	.19**	.35**	1					
4. Neuroticism	-.31**	-.36**	-.30**	1				
5. Openness	.08	.22**	.12*	-.19**	1			
Parenting stress								
6. General stress	-.35**	-.30**	-.24**	.47**	-.11	1		
7. Burden & distress	-.22**	-.19**	-.24**	.42**	-.10	.65**	1	
8. Guilt	-.24**	-.20**	-.20**	.36**	-.09	.72**	.69**	1
9. Total	-.30**	-.26**	-.26**	.48**	-.12	.89**	.89**	.88**

* $p < .05$, ** $p < .01$

체적으로 신경증적 성격과 양육스트레스가 정적상관을, 그 외 변인과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신경증적 성향이 낮고, 친화성이 높을수록, 성실성이 높을수록, 외향성이 높은 성향이 양육스트레스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하위변인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 성격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각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Durbin-watson 검증을 한 결과 계수가 1.784~1.988점으로 잔차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귀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관련 변인들이 연속 변인인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명목변수와 서열변수의 경우는 더미화를 통해서 회귀분석이 가능하도록 부호화하여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이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 I 단계에서 일반적 특성에 어머니 성격을 각각 투입하였고, II 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 성격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첫째, 양육스트레스 관련변인을 각각 하나씩 투입하였던 모델 I 은 Table 5와 같다.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의 인구학적 변인의 대한 설명력은 18.8%이고 어머니 성격요인은 38.9%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취업모 자신의 성격특성이 양육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여주는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만을 투입하였을 때의 설명력은 18.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가족 월수입($\beta = -.305, p < .01$), 연령($\beta = -.219, p < .05$), 교육수준($\beta = .194, p < .05$),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beta = .184, p < .05$)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는 정적인 영향을, 가족 월수입, 연령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족 월수입이 다른 인구학적 변인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월수입이 적

Table 5.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Variables	Model I		Model II
	β	β	β
Age	-.22*		-.23**
Education	.19*		.19*
Occupation	.15		.15*
1. Monthly family income	-.31**		-.13
Number of children	.01		.09
First child	-.09		-.06
Afterschool care (yes/no)	.18*		.05
Afterschool care type	.08		.09
Agreeableness		-.16	-.12
Conscientiousness		.14	.23**
2. Extraversion		-.18*	-.18
Neuroticism		.37***	.30***
Openness		-.10	-.04
Constant	3.64	3.63	4.10
R ²	.19	.39	.57
F	3.57***	5.79***	6.81***

Note. 1) Education: 0 = High school or less, 1 = College or more 2) Occupation: 0 = non-professional, 1 = professional 3) Income: 0 = 3,800,000 or less, 1 = 3,810,000 or more 4) Number of child : 0 = 1, 1 = 2 or more 5) First child: 0 = no, 1 = yes 6) Afterschool care provider: 0 = no, 1 = yes 7) Care provider: 0 = relative, 1 = non-relative.
* $p < .05$, ** $p < .01$, *** $p < .001$

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방과 후 자녀 조력자가 있는 경우의 기혼취업여성이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가족 월수입이 적을 때에 양육비용 또는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더 느끼게 되고 이에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것으로 보여 지며 모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에 대한 경험부족과 시행착오 그리고 아동의 나이도 어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역할에 대한 완벽성을 추구하거나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고 방과 후 자녀 조력자가 있는 경우는 조력자 대상이 할머니나 친인척인 경우가 많아 원가족에 대한 부담감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볼때 여성의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은 수입, 교육수준, 직업유형 등의 관련성이 일관성 있긴 보다는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변인들 중 어머니 성격 요인을 투입하였을 때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 성격 요인 중 신경증적 성격($\beta = .30, p < .001$), 성실성 ($\beta = .24, p < .05$), 외향성($\beta = -.18, p < .05$)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연령($\beta = -.20, p < .05$)과 교육수준($\beta = .19, p < .05$) 그리고 전문직 여부($\beta = .15, p < .05$)가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과 성실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외향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성실성이 높은 성격이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어머니 스스로가 꼼꼼하고 열심히 일하며 시간낭비를 하지 않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큰 성격일수록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러한 믿음과 태도로 임하기 때문에 아이를 잘 길러야 한다는 것이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향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은 긍정적이며 낙천적이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즐기는 성격임으로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적 자원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모의 직종이 전문직일 때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양육스트레스 예측변인 중 신경증적 성격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성실성, 어머니 연령, 교육수준, 외향성, 전문직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성격변인 투입이전에 강한 예측변인이었던 가족소득은 최종 회귀모델에서는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현대사회에 있어 사회, 가족, 개인의 욕구와 기능 및 역할이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해 양육기능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자녀 양육의 문제는 부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족은 서구 문화의 도입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핵가족화 되고 있으나 실제의 가족가치관은 전통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성에게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최근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나 인구학적인 변인의 영향력만을 고찰하고 있으나 양육스트레스는 객관적인 양육부담보다는 양육자 자신의 개인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취업여성의 개인성격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변인을 알아봄으로서 기혼취업여성이 양육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연구결과를 통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에 관련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중간 이상 수준의 양육스트레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중심적인 한국가족에 있어서 부모들의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디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나친 교육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자녀 양육 현실을 두고 볼 때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은 양육 스트레스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되어지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비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인한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부담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두 번째로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높았는데, 산업화로 인하여 현대적 성역할 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머니 역할은 전통적인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기혼취업여성은 대리양육자 특히, 타인에게 맡기고 직장에 나갈 때 불안감과 죄책감이 가중 될 것이며,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양육효과에 대한 정보부족과 특정상황의 불참여로 인한 어머니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순인데 일상적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몇 가지 동시 발

생적으로 나타나며, 복합적인 스트레스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것으로 기혼취업여성은 자녀양육 스트레스 하위요인 모두에 대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취업모 특성상의 자녀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발생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각각의 하위요인별 스트레스에 미치는 다양한 관련 변인이 충분히 탐색되어야 하며, 후속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과 이러한 변인의 영향으로 인해 기혼취업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한 행동의 변화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해 다각적으로 충분한 탐색과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련변인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연령, 교육수준, 첫째자녀연령,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 변인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째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방과 후 자녀 조력자가 있는 경우가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였다. 연령에 따른 집단차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였고 이는 연령이 낮은 기혼취업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으며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더욱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22, 31]. 반면 교육수준은 높은 집단이 양육스트레스를 갖는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높으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간의 역할 갈등이 높고 스스로에 대한 완벽성을 추구하거나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어지며 이는 선행연구[10, 18]와 일치하였다. 첫째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서[18]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더 많이 써야하며 자녀양육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방과 후 자녀 조력자 유무에서도 조력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자녀 조력자 대상이 할머니나 친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기혼취업여성에게 일과 가사부담과 동시에 양육부담과 원가족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결과이다. 따라서 조력자 유무가 중요하기 보다는 조력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담과 양육스트레스의 또 다른 측면이 되고 있음은 주지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모 성격과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성

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모 성격 유형별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모 성격 중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친화성이 낮을수록, 성실성이 높을수록, 외향성이 낮을수록, 신경증적 성격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실성이 높고 신경증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하고, 계획된 대로 완벽하게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는 생각이 강하며, 자녀의 행동을 왜곡해서 판단하거나 자녀의 잘못이나 실수를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여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며[35], 쉽게 불안해지고 긴장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요구에 맞게 민감한 양육행동을 보이기 어려우며 어머니 요구대로 강요하는 양육행동을 보이기 쉽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낀다고 볼 수 있다[33].

반면, 친화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을 신뢰하고 자녀에 대한 친근한 관심을 가지려하고 솔직하고 순응적인 태도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너그럽고 쉽게 용서하며 대립관계는 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를 대할 때 감정 이입 정도가 높고 자녀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격으로 보여 진다. 외향적 성격특성이 높은 어머니는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사교적이며 긍정적인 성격이 높을수록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14], 스스로 자책하거나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덜 사용하며,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재해석하는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함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26]. Belsky는 그의 양육모델에서 1) 어머니의 성격을 비롯한 심리학적 요인, 2) 자녀기질과 같은 자녀특성, 그리고 3) 부부관계, 직업경험,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부모됨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그 중 성격특성이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그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6].

이에 기혼취업여성의 성격특성은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취업모 스스로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기혼취업여성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프로그램에 있어서 양육자 성격특성을 파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한국적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양육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스스로가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지각하고 그에 따른 양육태도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성격특성을 고려하는 맞춤형 양육유형을 개발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기혼취업여성의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으로 성격에 따른 대처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모예비교육과 부모의 통제능력 기르기와 같은 교수방법이나 활동자료의 개발이 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의 성격을 알고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혼취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는 취업모 정신건강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모두의 행복과도 결부되어 있다. 취업모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인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취업모 스스로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래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보다 감소될 수 있고, 어머니의 태도 변화와 양육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본인 스스로의 성격적 요인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한다면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모 성격과 관련된 다각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자료, 부모교육 등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법 습득 후 취업모가 자녀에게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맞벌이 가정안에서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시도된 적이 없는 취업모의 성격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간과되어졌던 어머니 성격 유형별로 양육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방법적 차이나 양육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경기도 지역의 기혼취업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음으로 맞벌이 가정, 비 취업모 등으로 연구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모 성격만을 살펴보았으므로 자녀기질, 부부관계, 취업모의 직장관련 변인(근로시간, 근무장도나 여건 등), 가사노동 관련변인(가사노동시간, 배우자와의 가사분담 정도), 양육지원 등의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서 양육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다양한 대안들은 모색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의 기혼취업여성에 대한 자녀 양육스트레스

를 낮출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

1. Abidin, R. (1992).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4), 298-301.
2. Ahn, Y. H., Kim, Y. H., & Han, S. Y. (2008).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characteristics and couple's child-rearing agree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Human Ecology, 12*(2), 1-14.
3. Bae, K. Y.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ily stress of infants and the raising stress of dual-earner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4. Beik, Y. S. (2007). *The effect stress and guilt of mothers in raising children have in their attitude of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5.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hild Development, 55*, 83-96.
6. Belsky, J., & Barends, N. (2002). Personality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3*. (pp. 415-438). Mahwah, NJ: Lawrence Erlbaum.
7.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8. Crockenberg, S. (1987). Support for adolescent mothers during the postnatal period. In C. Boukydis (Ed.), *Research on support for parents and infants in the postnatal period* (pp. 3-24). Norwood, NJ: Ablex.
9. Gomez, R., Gomez, A., & Cooper, A. (2002).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as predictors of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 information of processing: Comparing Eysenck's, Gray's, and Newman's theori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 333-350.
10. Jeon, S. M. (2007). *A Study on parenting stress and child-care support needs of mothers with infant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11. Jin, S. O., & Kim, Y. H. (2003). Young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personality, and discipline style. *Journal of Human Ecology*, 7(2), 137-156.
 12. Jun, C. A., & Park, S. Y. (1998). Exploration of psychosocial variables related to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1), 95-104.
 13. Jung, J. Y. (2002).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 Relations to the maternal perception of child behavior problem and the mother-child's goodness of Fi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4. Kang, Y. M. (2004). *A study on the effects of mothers' motivation of achievement, anxiety, and trust of children on their child-rearing attitud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15.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16. Kim, H. J. (2004).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of child rearing between a working mother in a dual-income family and a full-time housekeep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17. Kim, J.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kook University, Seoul, Korea.
 18. Kim, J. A. (2001). *A comparative study on parenting stress of dual-income couples with child growth stag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19. Kim, K. H. (2000).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0. Kim, K. H., & Jo, B. H. (2000).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Child Studies*, 21(4), 35-50.
 21. Kim, K. H., & Kang, H. K. (1997). Research: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9), 141-150.
 22. Kim L. J., & Yoon, J. H. (2000). An ec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2), 47-58.
 23. Ko, S. H. (1994). Studies on mother's perception of parenting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18, 21-31.
 24. Kochanska, G., Clark, L., & Goldman, M. (1997). Implications of mothers' personality for parenting and their young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65, 389-420.
 25. Lee, J. W. (2003). The childcaring stress on mothers of infant and toddler and its related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7(2), 207-216.
 26. Lee-Baggeley, D., Preece, M., & DeLongis, A. (2005). Coping with Interpersonal stress: Role of big five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73, 1141-1177.
 27. Losoya, S., Callor, S., Rowe, D., & Goldsmith, H. (1997). Origins of familial similarity in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12-1023.
 28. Min, B. M., Lee, K. I., & Jeon, J. C. (1997).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 PI-RS)*. PSI Consulting. Seoul: Korea.
 29. Moon, Y. P. (1990). *A study on the role and gender role attitude of urban coup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30. Park, H. M. (1994). *A study on parental stress based on the parenting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31. Pyun, E. S. (2004). *The mother's role of recognition and the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having children from infants to pre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32. Seo, J. S. (2004). *The research on the working mother's stress from raising children -Focused on the aspect of social welf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Seoul, Korea.
 33. Smith, C. L., Spinrad, T. L., Eisenberg, N., Gaertner, B. M., Popp, T. K., & Maxon, E. (2007). Maternal personality: Longitudinal associations to parenting

behavior and maternal emotional expressions toward toddler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7(3), 305-329.

34. Statistics Korea. (2010). *Social survey: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Seoul: Statistics Korea.
35. Vondra, J., Sysko, H., & Belsky, J. (2005). Developmental origin of parenting: Personality.

In T. Luster & Okgaki, L.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35-72). Lawrence Erlbaum Assoc Inc. NJ: LEA.

접 수 일 : 2012년 7월 9일
심사시작일 : 2012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0월 22일